

선동열, KIA 감독 사퇴... 광주FC '기적의 승격'

2014 광주·전남 스포츠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스포츠 현장 곳곳에서는 극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됐다.

아시아의 스포츠제전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른 광주·전남의 스포츠 스타들도 있었고, 광주 FC의 전사들은 클래식 리그 승격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해외 무대에 우뚝 선 축구의 기성용과 골프 이 미림은 활약을 눈부셨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성적 속에 KIA 선동열 감독이 사퇴를 하는 등 아쉬움의 순간도 많았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임박하는 등 광주 스포츠 환경도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올 한해 광주·전남 스포츠계의 명암을 살펴본다.

1 '임의 탈퇴' 광주일보 보도에 감독 사퇴

선동열 감독의 고향에서의 3년은 '5-8-8'로 끝이 났다.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현재와 미래 모두를 쫓지 못한 선 감독은 재계약 논란의 주인공이 되며 자진 사퇴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지난 시즌 1위에서 8위로 급추락, 올 시즌에도 한화과 최하위 다들 끝에 8위를 기록하면서 선 감독의 지도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약속했던 '소통'도 지켜지지 못한 만큼 2년 재계약 발표는 프로야구계에 핫 이슈가 됐다. 예상보다 팬심의 동요는 컸다. 구단 본사 앞에서 재계약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있었고, 각종 야구 기사판은 반대 여론으로 들끓었다.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성난 팬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임의탈퇴 발언까지 알려지는 등 여론의 못매를 맞은 선 감독은 결국 재계약 발표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2 광주 FC, 2년 설움 털고 클래식행

K리그 챌린지 리그(2부)에서 2년의 시간을 곱씹었던 광주 FC가 3년 만에 클래식리그(1부)로 돌아간다. 광주는 12월 3일과 6일 치러진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3-1 승리에 이어 1-1 무승부를 기록, 4-2의 최종 스코어로 승격의 꿈을 이뤘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간신히 4위 자리를 확정했지만 '겨울 잔치'에서는 거칠것이 없었다.

3위 강원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0 승리를 거둔 광주는 2위 안산 경찰청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3-0 골란지를 벌였다. 클래식 리그 경남과의 승부에서도 공·수에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보름 동안 치러진 4경기를 3승1무로 장식했다. 2011년 시민구단으로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뎠던 광주는 2012년 K리그 사상 첫 강등팀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기적같은 질주로 클래식 복귀에 성공했다.

3 한국 야구 새역사 '챔피언스필드' 개장

2014시즌 챔피언스필드에서 광주 야구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4월 1일 NC와의 홈 개막전이 챔피언스필드의 역사적인 첫 날로 기록됐다. 2만2000석이 가득 차면서 매진 사례를 이룬 이날 KIA 에이스 양현종이 선발로 나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첫 첫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FA로 고향에 돌아왔던 외야수 이대형은 새 구장에 선 KIA의 첫 타자가 됐고, 내야수 안치홍은 챔피언스필드 첫 안타 기록을 남겼다. 2011년 11월 착공된 챔피언스필드는 지하 2층 지상 5층 2만2000석 규모로 국내 최초로 콘코스(Concourse) 개방형 구조가 도입됐다. 외야에는 국내 최대 규모(35m×15m)의 풀 HD급 전광판이 설치됐다.

4 기성용 부활 '차세대 캡틴'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유니폼을 벗고 그라운드를 떠난 2014년, 프리미어리그 기성용(스완지시티)이 만개한 실력을 선보이며 한국 축구의 차세대 캡틴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지난해 기성용은 최강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비난글로 SNS 파문을 일으켰다. 기성용이 고개를 숙였지만 축구선수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기성용은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자신의 과오를 만회했다. 지난 여름 치러진 브라질 월드컵에서 중원의 사령관으로 실력을 발휘한 기성용은 소속팀에서도 무리익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새로 출범한 슈틸리케호의 첫 주장으로 선임돼 대표팀에서 처음 완장을 찼다. 기성용은 대표팀 막내에서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대표팀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활짝 날개를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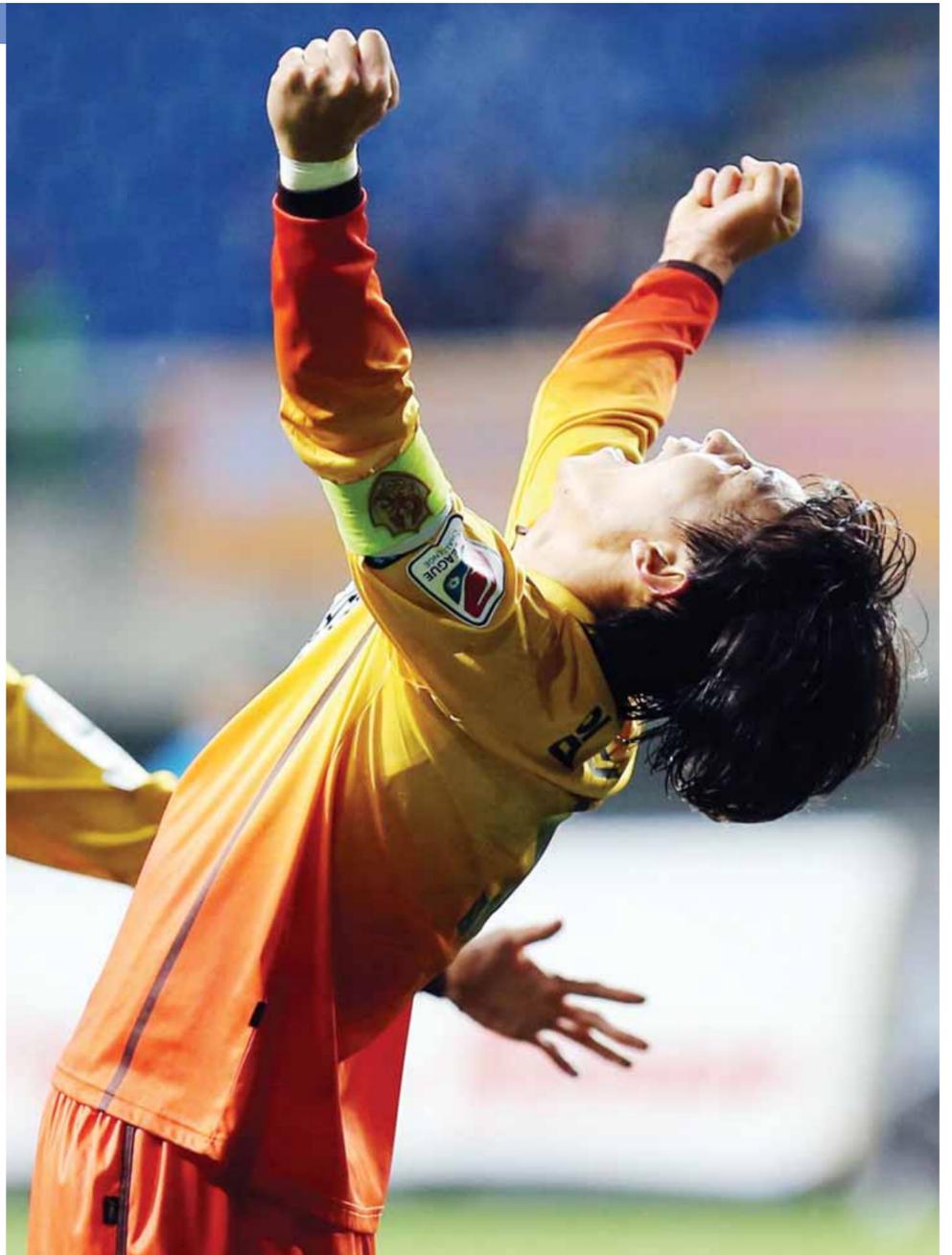
5 U대회 개최...광주 스포츠 영향력 세계 24위

내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에서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다. U대회는 전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 규모의 종합스포츠 대회로, 광주시가 자력으로 개최하는 첫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다.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국가별 참가신청을 받고, 내년 3월3일까지 선수단 규모를 알리는 '수엔트리'를 마감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170여개국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장 준비도 순조롭다. 현재 경기장 평균 공정률은 80%다. 남북 단일팀 구성도 추진 중이다.

U대회 개최를 앞두고 광주의 스포츠 영향력이 크게 상승했다. 영국의 스포츠마케팅연구소인 스포트칼(Sportcal)이 최근 발표한 '스포츠에 영향력이 있는 세계 100대 도시' 중 광주는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34위에서 1년 새 10계단 상승한 것이다. 오롯이 U대회의 힘이다.

6 광주의 아들 서건창·강정호 프로야구 맹활약

'광주의 아들' 서건창과 강정호(이상 넥센)가 프로야구계에 큰 획을 그었다. 신고선수 신화의 주인공 서건창은 올 시즌 또 다른 신화를 만들었다. 10월13일 고향에서 치른 KIA와의 경기에서 광주일고 대선배 이종범이 1994년 작성한 196개의 안타를 넘어 최다 안타기록을 새로 썼다. 서건창의 안타행진은 2011에 멈춰서면서 200안타 고지까지 넘었다. 서건창은 프로야구 MVP 등 각종 시상식을 섭렵하며 올 시즌 프로야구의 별이 됐다. 강정호도 역사를 만들었다. 유격수 40홈런이라는 기업을 토한 강정호는 포스팅에 나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야수로 메이저



▲지난 3일 열린 K리그 승강 PO 경남과 경기에서 후반 세번째 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는 광주FC 임선영.

리그 피츠버그로부터 500만215달러(약 55억원)의 응징액을 받아냈다. 한국 선수로는 류현진에 이어 두 번째, 이치로와 니시오카에 이은 전체 야수 세 번째 금액이기도 하다.

7 이용대 약물파동 등 광주·전남 스타들 역경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이용대·양학선·기보배가 험난한 한해를 보냈다.

'서투룩 황제' 이용대는 올 초 협회의 미숙한 대처 탓에 약물검사 절차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며 속앓이를 했다. 소명 작업 끝에 어렵게 자격 정지에서 벗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그는 단체전 금메달에는 성공했지만 남자복식에서는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양학선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기보배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개인, 단체전 2관왕에 올라 한국 양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혼성전 금메달을 땀지만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컨디션 난조 때문에 탈락했다.

8 시·도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유재신·김철신

광주·전남 체육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광주시장·전남지사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다.

특히, 광주시체육회는 5개월간의 진통 끝에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이 상임부회장에 낙점됐다. 유 상임부회장은 "광주 체육인들의 자존심·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며 "체육인들과의 소통,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는 8년만에 상임부회장 직제를 부활하고, 김철신 전 전남도의회 의장을 선임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전남체육의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남체육

의 대외활동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행정, 선수가 우선인 체육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9 이미림, LPGA 신데렐라 등극

'광주의 딸' 이미림(우리투자증권)이 한국 여자 골프의 에이스 박인비(KB 금융그룹)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의 신데렐라가 됐다.

이미림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열린 마이어 LPGA 클래식에서 박인비의 연장접전 끝에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무등초 4학년때 골프에 입문해 문화중 3학년 당시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던 이미림은 다음해 광주 첫 여자골프 국가대표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201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시작한 뒤 지난해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고, 데뷔 첫해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며 막강 한국 여자 골프의 새 동력이 됐다.

일본으로 눈길을 돌린 광주출신의 '지존' 신지에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4승을 수확하며 활짝 웃었다.

10 아시안게임·전국체전 발군의 활약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수확한 메달 234개 가운데 64개를 광주·전남 선수들이 수확했다. 전체 메달의 27.4%가 광주·전남 선수들의 몫의 결실이다. 3관왕을 차지한 불링 대표팀의 막내 박종우(23·광양시청), 여자 유도 67kg급 김성연(23·광주도시철도공사), 열광 순천 총잡이 김준홍(24·KB국민은행) 등이 스타덤에 올랐다.

전국체전에서는 전남체육의 성장이 돋보였다. 지난해 13위였던 전남은 종합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지만, 한 수 아래인 제주가 개최 인센티브를 받아 11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보다 2계단 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선동열